

비행문화와 청소년 비행*

- 제주지역 보호관찰소년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 민 호**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II. 연구방법
- III. 제주지역 보호관찰소년들이 지각하는 삶의 세계
- IV. 제주지역 보호관찰소년들의 비행 요인에 관한 논의
- V. 맺음말
- * 참고문헌
- * 부록

I. 문제의 제기

청소년 비행은 부정, 사기, 속임수, 불공평, 범죄, 비열, 피병부리기, 부도덕, 부정직, 배반, 독직, 부패, 사악 및 죄 등과 같은 일탈(deviance)의 일종이다. 그러나 일탈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같은 현상이라 해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즉, 일탈을 「규범위반」(a norm violation)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 규정」(a social definition)으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장상희, 1986:2).

전통적으로는 일탈을 규범위반으로 이해해 왔다. 그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문제시하는 일종의 질병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들은 일탈의 원인을 일탈자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예컨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 이 글은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가 주최한 제1회 청소년 선도대책 세미나(93.5.14)에서 「사회교육과 청소년비행 예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논문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

** 제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신체적 조건 혹은 유전적 인자에서 찾거나 아니면 개인의 비정상적 인성의 탓으로 돌렸다. 때로는 일탈의 원인이 사회학적 측면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문화적 목표와 구조적 수단간의 불일치의 결과(anomie)로서, 사회적 결속력의 감소에 따른 생활 불만족도의 증가로서, 아니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문화를 학습한 결과로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이후 일탈을 사회적 규정으로 보려는 시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낙인이론이다. 즉, 일탈이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붙이는 낙인이나 사회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일탈에 관한 이러한 여러 이론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사회의 일탈 현상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더군다나 제주지역의 일탈현상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었다. 외국에서 형성된 일탈 이론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론들의 사회문화적 적합성에 대한 논의의 단계를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탈현상에 관한 연구들의 상당 부분이 현황과 특징을 기술하거나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지, 원인규명에 대한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게다가 제주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논의할 때, 대부분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사회구조적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다(김태보,1991;박태수,1990,1993;손영주,1993;양정국,1993;허철수,1991).

따라서, 이 글은 이제껏 제주 청소년 비행의 원인규명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하나의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즉, 제주지역 「청소년 비행」은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제주의 청소년들이 「비행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야기되었다는 차별적 교제이론의 가설을 검토하고자 했다.

II. 연구 방법

우리는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쓰고 또 자주 듣게 된다. 말 그대로 오늘의 청소년들은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야할 존재임에 틀림없다. 사실, 우리가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자주 언급하는 까닭도 청소년들에게 너

무 소홀했던 우리 기성세대 자신들을 반성하고 청소년들이 내일의 우리 사회를 잘 짊어지고 가도록 '청소년들을 잘 보살펴야겠다'는 뜻에서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표현에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청소년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결의 외에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일 뿐 '오늘의 주인공'은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세대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많은 조처들은 '오늘의 주인공'인 성인세대의 시각에서 마련되고 집행되기 쉽상이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은 오늘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성인세대가 마련해준 것을 잘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 셈이다. 예컨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밝은 내일을 위해 현재의 욕구를 유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르도록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청소년의 휴식과 여가선용을 위해 마련한 여러 공간이나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들도 전시행정이나 상업적 이윤추구에서 비롯된 경우가 없지 않다.

성인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것은 단지 가정·학교·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하는 데 한정되지 않는다.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개의 학자들은 청소년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청소년에 관계된 사건이나 사회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청소년과 동떨어진 제3자의 입장에서 눈으로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근거로 청소년들을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간사회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의존하는 '객관적 사실'은 자연과학적 사실만큼 그리 객관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action)란, 행위자의 동기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단지 객관적 사실만을 바탕으로 인간행위를 설명(explanation)하는 것은 그 행위의 본질을 드러내기에 충분치 못하다. 오히려 인간행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동기를 이해(understanding)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생활세계속에 '참여'하여 행위자의 상호주관적 생활세계를 해석해야 한다(김민호, 1987).

이 글에서 다루는 제주지역 청소년 비행과 비행문화에 대한 연구는 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 비행에는 사법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설령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비행 청소년」¹⁾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문제행위의 결과만을 고려했을 따름이지 그 문제 행위의 동기나 문제행위를 이끈 행위자의 내면의 세계를 굳이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절도, 장물취득죄로 교도소와 소년원을 거쳐 한 때 보호관찰을 받았던 <사례 #1>의 어떤 소년의 이야기는 매우 시사적이다.

<사례 #1>

“이번 일은 정말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처음 차를 훔치게 된 것은 ○○와 함께 집에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노래방에 가자고 하는 바람에 12시까지 노래방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갔는데, 기다려도 친구는 안오는데 웬 차가 갑자기 우리 앞에 멈추더니. 어떤 여자와 싸움을 하면서 밀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었다. 주위에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차는 문이 열린 채 시동이 걸어져 있다. ○○가 운전할 줄 안다면서 함께 타고 돌아 다녔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겁이 났었지만 차를 타고 돌아 다니면서부터는 별로 그런 것을 못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불안감과 긴장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만을 참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었는가 의심스럽다. 한 순간의 실수로 나 외에도 부모님, 친구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차를 잃어버린 차주들에게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후회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 하고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그리고 다시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1) 비행청소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청소년백서,1988:330,340).

- 1.범죄소년 :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 2.촉법소년 :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 3.우범소년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년
- 4.요보호소년 : 우범소년의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소년. 즉, 보호자로 부터 유기되었거나 이탈된 자 또는 도저히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자로 이른바 미아, 기아, 무작정 상경자를 일컫는다.
- 5.불량행위소년 : 우범소년의 하나로서, 음주, 깃연, 싸움을 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소년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제주 지역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자신의 비행때문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이른바 「제주지역 비행 청소년들」의 주관적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회상록>²⁾을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회상록에는 ① 나의 가정 ② 나의 학교생활 ③ 나의 사회생활(나의 친구, 나의 고민) ④ 나의 이번의 실수 ⑤ 나의 장래 ⑥ 지금 가장 말하고 싶은 것 ⑦ 제목:자유(다하지 못한 이야기) ⑧ 기타(사랑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나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 남아 있던 것) 등이 담겨 있어서, 보호관찰 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생활세계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관찰 소년들과 일반 청소년들을 비교하기 위해 제주도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급문집>에 실린 글들도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보호관찰 소년들의 「비행」이 이들이 생활세계 안에서 학습한 「비행문화」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자 했다.

Ⅲ. 제주지역 보호관찰소년들이 지각하는 삶의 세계

제주지역 보호관찰 소년들이 지각하는 삶의 세계는 이들의 실존적, 사회적 삶의 조건에 따라 ① 자기 자신 ② 가정 ③ 학교 ④ 친구 및 ⑤ 사회의 다섯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 제주지역 보호관찰 소년들이 각 부분의 삶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각이 과연 제주지역의 일반 청소년들의 지각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1. 자기 자신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정체감의 위기(Identity Crisis)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중성에 대해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2) 여기서 인용되는 회상록은 제주보호관찰소가 93년 당시 보관 중인 것이었다.

<사례 #2>

“나의 성격을 말하면 꿈하면서도 아주 활발합니다. 말도 잘하고 재미있게 해서 친구들이 저 보고 코메디언이 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친구와 있을 때이지 집에 들어 오면 꿈하고 말도 잘 안하고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죽치다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잔다. 밖에 나와 친구를 만났을 때와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른 이중 성격을 가진 게 나입니다.”

<사례 #3>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착하고 순하게 생겼다지만 그것은 착각에 다달 뿐이다. 겉으로는 착하고 순하지만 속은 아주 더럽고 못난 놈이다. 그저 부모님께 불효나 보이고 나쁜일만 끌라 가면서 한다.”

<사례 #4>

“나는 내성적이며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별로 없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는 과감한 성격이 있는 것 같다. 이번일(특수강도미수)이 그 성격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사례 #5>

“나라는 사람은 성격은 순하고 남을 잘 도와준다. ...사회에 나와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먼저 기술을 배우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중략)... 나는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성격은 급하고 불같다. 숙제를 내면 그 시간에 안하면 죽어지는 성격이고.”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집안과 집밖에서 자신의 태도가 다르며, 착하면서도 더럽고, 내성적이면서도 과감하며, 남보다 앞선 면이 있는가 하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의 이중성은 보호관찰 소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결코 아니다.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자기정체감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모두가 겪는 일이라 여겨진다. 제주의 어느 일반 고등학생이 “나” 라는 제목으로 서클문집에 게재한 다음의 글은 이를 뒷받침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거울을 좋아 했었고 특히 눈을 무척 좋아했었다.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면 밖을 쳐다 보았고 눈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울상을 짓기도 했었다. 지금은 내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하고 의심이 갈 정도이며 주위의 환경을 보면서 변해 버린 세월 속에서 이 기억들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어 나를 몹시 안타깝게 한다. 이제는 기계같이 반복되는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심은 내 마음을 꽉 조르고 있지만 이런 일로 인생 전체를 암흑으로 생각하진 않으리라. 나는 나만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 불리어 지도록 내 자신에게 약속할 것이다.”
(신 ○호, ○○고 홍사단 아카데미 서클문집 『머드러기』 제2호에서 발췌)

2. 가족에 대해

흔히 비행 청소년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조적이든 심리적이든 결손가정에서 자라는 가운데 비행의 길에 빠져든 것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보호관찰 소년들중에는 <사례 #5>, <사례 #6>, <사례 #7>처럼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례 #1>과 <사례 #8>의 보호관찰 소년처럼 자신의 가정을 원만하고 화목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례 #5>와 <사례 #7>의 청소년도 비록 결손가정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례 #5>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금 헤어져 살고 있다.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도 않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제주도에서 서울로 간 것이다.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고 찾아가고 싶지도 않다. 아버지는 일도 잘 다니지 않고 어머니가 일을 다니려고 하면 못다니게 한다. 그리고 우리 아니 엄마, 나, 동생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는 고모집에서 밥을 먹어 오곤 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육지로 나가셨고(2년 정도-필자 삽입), 어머니가 돌아온 뒤, 동생은 아버지와 나는 나혼자 나와서살면서 어머니 곁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살다가 동생 소식을 들은 것이다. 아버지는 동생을 보살피지도 않아서 이모들 께서 데리고 살다 내가 동생을 데려와 어머니와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사례 #6>

“내가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워 가지고 어머니가 맞다 못해서 집을 나가 버렸다. 이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아버지 친구와 만나면 술만 먹고 난 그런 것이 싫다.” “괴로운 일은 새어머니가 잘 안해줄 때, 친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괴롭고... 고민은 내가 크면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까, 새어머니를 모시고 살까 하는 것”

<사례 #7>

“집에 가도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기는 어렵다. 모두가 일을 나가고 없었기 때문이다. 식구얼굴 보기조차 어려웠다. ...내가 어렸을 때는 저녁 때가 되면 식구들이 모두 모여 식사도 같이 하고 장난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식구들 모두가 일을 하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는 모습들이 좋다.”

<사례 #1>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둘 있는 다섯식구이다. 아버지는 엄격하시면서도 매사에 신중을 기하시고 항상 대화로서 모든 일을 풀어 나가신다. 국민학교때는 시험을 못보고 오면 팬찮다고 하시면서 다음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타일러 주시는 아버지가 정말 고맙게 느껴진다. 그리고 친구와 싸우고 오거나 하면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고 물어보시고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맞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난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멀리 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면 조용히 얘기좀 하자고 해서 이야기 할 때마다 아버지도 더 나에게 고맙게 생각하곤 한다. 어머니는 나에게 들도 없이 고마운 분이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참 편하게 대해 주시고, 언제나 부담이 없다. 내 방에서 잘 때 어머니께서는 항상 한번씩 들려서 모기향도 꺼지지 않았나 하고 보고 이불도 덮어 주고 간다. 알게 모르게 어머니는 나에게 참 편안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 다섯 식구는 모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며 잘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

<사례 #8>

“나의 가정은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며 언제나 부담없이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누나는 동생을 친구들처럼 대하여 주고, 어머니 또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키워 주신다.”

일반 청소년들 중에서도 자신의 가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다음의 글은 일반 청소년들의 가정에 대한 평소 생각의 일단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들과 달리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어 비행에 가담했던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어른들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공부를 강조하신다. 물론 이것은 나를 위한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공부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바램은 어른들의 손에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당당한 생각이지만 우리들은 따뜻한 가정에서 모든 식구가 도와가며 부모와 자식간에 사랑이 오갔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의 청소년은 많은 것을 느끼며 살아 갈 것이다. ...(중략)... 또한 어른들의 사회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곤 한다. 이런 일 때문에 친구들이 가끔 가출을 하곤 한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도 가정문제도 없는 그런 사회이다.”(오○환, ○○중 2학년 2반 학급문집 『담쟁이넝쿨』에서 발췌)

3. 학교에 대해

가정생활과 마찬가지로, 제주지역 보호관찰 소년들의 학교생활도 부정적 체험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사례 #2>, <사례 #9>, <사례 #10>, <사례 #11>의 청소년들처럼 많은 경우, 학교생활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었다. 그러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는 <사례 #1>처럼 운동을 통해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학교생활을 하거나, <사례 #6>, <사례 #12>처럼 공부는 잘 하지 못해도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더불어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사례 #2>

“저의 학교생활은 제 자신이 생각해도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 학교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친하지 않으면 입을 봉해 버리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 전 학교가 무척 싫어했습니다. ... 제일 싫어했던 것은 시험기간이었습

니다. ...시험지를 받고나서 옆으로 밀치고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것 일쑤였습니다. ... 그럼도 그럴줄 모르고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업시어서 학교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지만 학교는 결석 한번 없이 다녔습니다.”

<사례 #9>

“중학교 1학년 때에는 학급 간부의 일원으로서 통솔력도 있었고 친구들도 잘 따라주었는데 지금은 몇몇 친한 친구 외에는 적어도 반에서는 가깝게 지내려 하지 않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례 #10>

“1학년 때의 일이었다. 내가 ○○농고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들은 전부가 무서웠고 보기가 겁났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죄는 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사례 #11>

“나의 고등학교 시절은 처음 들어 갔을 때는 야무진 꿈을 갖고 들어 갔고,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많이 마시러 다녔고, 학교 수업은 충실히 못했습니다.”

<사례 #1>

“공부가 뒤 떨어진 바람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실업계인 상고에 들어 가게 되었다. 하지만 상고에 가서 생각해보니 인문계보다는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검도라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상고 운동부에 들게 되었다. 운동을 하다 보니 학업성적은 계속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도 뭔가 한 가지 다른 아이들보다 색다른 걸 한다는 자부심으로 운동만은 열심히 하였다. 다른 아이들 보다 단도 6개월 먼저 따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였다. ... 나 나름대로 운동쪽으로 나아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냈다고 생각한다.”

<사례 #6>

“나는 학교생활은 만족한다. 집에 있는거 보다는 학교에서가 나는 더 좋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나를 아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심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례 #12>

“2월 10일 졸업식이 있었는데 상도 못받고 학교에 가서 뭐하나 하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스타일도 바꿔서 학교에 가니 보는 친구들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따라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멋있게 보일 때가 없었습니다. 그 날 마지막 종례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아쉬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학교 문을 나오면서 언제쯤 다시오게 될까 생각하며 학교와 마지막 뽀뽀를 했습니다. 전기대학을 아깝게 놓치고 후기대는 생각도 없었고 19일 ○○전문대 ○○과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렀습니다. 나오는 문제마다 그렇게 자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상상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일자리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 중에서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를 우리는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인용했던 제주 홍사단 아카데미 서클문집의 글이나 아래 인용할 제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글 “방황하는 10대”에서 오늘날 고등학생들이 기계적이고 경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방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비행이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경우에 생겨난다는 가설 또한 의문의 여지가 많다.

“남보다 조금이나마 앞서고 싶다는 욕심과 성적이 나쁠 경우 어디선가 날아올지도 모르는 몽둥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들은 안간힘을 쓴다. 또한 우리의 사회현실에서 볼 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유일한 출세의 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다. 가장 활발한 활동시기에 충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조금씩 무너지고 꿈을 잃어 버리게 되고 다만 대학에 들어가서 밥이나 먹고 살려는 기계가 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여러가지 하고 싶은 이리들을 공상에서 그칠 수 밖에 없고 행동을 억눌러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공부할 시간에 잠냄에 사로잡히고 드디어는 성적이 하향곡선을 긋는다. 청소년에게는 즐길 때 즐기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른들의 재물에 눈이 먼

소리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재물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어른들은 우리들 보다 더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죽을 때 재물을 놔두고 아무 것도 안가지고 가기보다는 죽을 때까지 삶의 의미를 알면 내세에 간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우리들의 상황을 좀더 이해해 줘야만 한다. 날로 치열해져 가는 입시전쟁에 있어 자유는 줄 수 없어도 삶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들을 이해 못해서 욕하고, 매를 들기보다는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들도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겠다.”(한 ○ 현, ○○고 1학년 7반 학급문집, 호스나히 중에서 발췌)

4. 친구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은 <사례 #7>처럼 대체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사례 #2>, <사례 #12>, <사례 #13>처럼 친구들과 사귀면서 좋지 못한 비행문화를 학습하고 비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일방적 특성인 ‘또래지향적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7>

“나의 친구들은 많은 편이다. 그 중에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나와 같이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다. ... 한마디로 말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해졌다. ... 그렇다고 해서 같이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은 서로를 위해주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걱정해 주고 기쁜 일이면 축하해 주고 그러한 친구들이기에 더더욱 친해졌고 정이 두터워졌다. ... 지금도 그 친구들만은 잊을 수가 없다.”

<사례 #2>

“전 지금까지 부모나 형제 선생님 이런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활발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몇 몇 친구들은 매우 단정하게 신경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비틀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고 학교를 중퇴하여 쉬고 있는 친구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단점은 폐지어 몰려다니며 담배와 술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단점이고, 장점은 친구들과의 싸움을 말할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친구들입니다. 사귀게 된 동기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친구들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례 #13>

“내가 이렇게 큰 사건(상해치사)을 저지르게 된 것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으며 친구들과 밤늦게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때도 술을 먹다 보니 12시가 되어서 집에 가려고 하다가 그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다. 나는 친구들이 싸우는데 말리지도 못하고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텐데. 후회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 말씀 듣고 집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하고 생각해 본다.”

<사례 #14>

“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구금생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서클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해서 공범이 7명인데 나와 또 한명은 이번 사건에 개입되지 안했는데 같은 서클친구라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도 나는 같이 있지 않았다고 말을 해주었지만 그들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서클이라는 글자가 내앞에 붙어 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 버리게 됐습니다.”

5. 사회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누구나가 사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사례 #3>, <사례 #4>, <사례 #14>, <사례 #15>처럼 어떤 보호관찰소년들은 우리사회가 냉정하며 돈에 지배되고 있으며, 부패가 만연하고, 말과 실천이 괴리되고, 불평등하다고 보는 반면에, 다른 보호관찰소년들은 직접 일을 해온 체험속에서 이웃간의 따스한 정을 느끼기도 하며, 자기 능력에 따라 열심

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사례 #5,10,16,17 참조). 이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청소년 비행을 문화적 목표와 구조적 수단간의 괴리에 따른 아노미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사례 #3>

“왜 사회를 살아 가려면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왜 사회인들은 돈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 나 자신도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사회는 돈없고 대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대우를 하지 않고 그저 대학교를 마치고 돈 있는 사람들만 대우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사회인들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이 고생하는 인간끼리 사회에서 차별을 할까?”

<사례 #4>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부패해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지만 내가 이번일로 만나게 된 사람들 얘기만으로도 확실하게 부패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사례 #14>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에게서 느낀점이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다가도. 막상 전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회사로 들어오기를 무척 꺼려합니다. 말로는 그럴듯이 말하다가도 말입니다.”

<사례 #15>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빨리 그만둔 것은 업주들에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빗나가고. 너무 이윤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이었다. 물론, 가게를 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 궁극적인 첫번째 목적일 것이다. 이런 나의 생각이지만 돈도 벌면서 사람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례 #5>

“나는 곧 중장비를 타는 게 목적이고 착하고 성실 근면하게 살 것이다. 작은

중장비를 차츰차츰 타면서 큰 장비를 탈 것이다. 그리고 돈을 조금씩 모아 회사를 차릴 것이다.”

<사례 #10>

“내가 실습을 나가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 사장님은 혼자서 일을 잘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처음 사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사장님은 내게 아주 잘 해주는 것이었다.”

<사례 #16>

“내가 이제까지 기뻐던 일은 내가 스스로 돈을 벌었을 때 였다. 언제나 하면 서귀포에서 살면서 작은 아버지와 함께 일을 배우면서 살았을 때 였다. 그 때 나는 작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다. 그 때 나는 그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때 나는 참으로 기뻐다.”

<사례 #17>

“언젠가 나가 방학을 기회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입니다. ”야 이멍청아 그게 아니라 이거란 말야 이 등신아“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막말로 멍청하고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회는 능력중심의 사회였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는 사회였고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IV. 제주지역 보호관찰소년들의 비행 요인에 관한 논의

앞에서 제주지역 보호관찰소년들의 글을 ‘일반 청소년들’의 글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들에게서 어떤 일관된 심리적 성향이나 가정, 학교 및 사회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제주지역 보호관찰소년들이 보여주는 사고의 이중성은 자아정체감을 찾아 방황하는 청소년들이라면 모두가 겪는 일이었다. 가정결손이 보호관찰소년들의 비행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보호관찰소년들 중에는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다가 비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일반 청소년들 중에도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나친 경쟁에 따른 학교생활의 부적응이나 실패 혹은 고립 등이 비행의 원인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청소년들 중에는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고, 반면에 일반학생들 중에서 학교생활에 불만을 갖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비행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보호관찰소년들 중에서 긍정적 사회관을 지닌 경우도 많았고, 사회적 불만이 일반 청소년들에게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요컨대, 보호관찰소년 개인의 심리적 속성과 주변의 사회적 조건이 일반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심리적 또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 그렇다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보호관찰소년들이 비행을 내면화하고 감행하게 되는 것은, 심리적 수준이든 사회적 수준이든 이들에게 '병원균'(Archer, 1985:743)과 같은 어떤 특성이 존재해서라기 보다는 이미 비행에 몰든 이탈자들과의 사회적 상호교섭 작용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보호관찰소년들이 보호관찰을 받기 전 정상적 상황에서, 비행을 문화적으로 허용하는 이른바 「비행문화」와 차별적 접촉을 하는 가운데 점차 이들 비행문화를 조금씩 조금씩 학습·수용하면서 비행의 동기를 배웠던 것이다. 비행을 찬동하는 상황이 비행을 억제·반대하는 분위기를 압도할 때, 비행동기를 학습한 이들은 마침내 비행을 감행하게 된다. 본드흡입으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어느 여학생(사례 #2)의 글은 이를 잘 보여준다.

“부모 형제를 무시하고 말도 안듣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아 다니면서 배워선 안될 것을 배우고, 보고, 듣고 하여 이런 일을 재미삼아 즐겼던 나입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해보기로 하고 그냥 장난삼아 해보았습니다. 친구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되어) 모두에게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장난삼아 했던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밖에도,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주위의 비행문화 집단과의 관계속에서 비행에 가담했음을 다음의 <사례 #3>, <사례 #8>, <사례 #9>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례 #3>

“가정을 떠나서 여러 사람들과 접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선배라든가 아니면 후배들을 알면서 때로는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쁜 일을 꾸미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가정을 떠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후회된 삶을 한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두 번다시 그런 사회생활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사례 #8>

“나의 이번 사건은 먼저 가출에 의하여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나쁜 친구들과 가출함으로써 흡연, 술을 한다. 그래서 돈을 구할수 있는 방법은 돈을 뺏거나 나쁜 짓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다보면 꼬리가 잡히는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사례 #9>

“이번 일은 친구의 권유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꼭 그렇다고 단정짓는다고 할 수 없겠지만. 처음 원인은 친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도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말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의 사회분별력이 부족해서인가 봅니다. 그 일이 이렇게 큰 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깊이 생각못했던 처음 그 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 요인이 행위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가정, 학교,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기 보다는 청소년이 차별적으로 접촉한 비행문화의 사회화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 학교, 사회 등 주변적 조건이 청소년의 비행과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들은 청소년들이 비행문화를 학습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우연적 요인이라 하겠다. 이 점을 고려해서, 제주의 가정, 학교 및 사회적 상황이 청소년 비행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늘날 제주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와 부부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칠 영

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최근들어 제주사회는 부모와 자녀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전통적 제주문화에 친숙한 부모세대는 일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할 일 없이 노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은 반면, 학교교육과 전파매체 등을 통해 육지로부터 유입된 소비문화를 접한 자녀세대들은 일을 기피하고 놀기를 좋아함으로써 심각하지는 않으나 부모와 자녀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어느 중학교 학급문집에 실린 “밭에 가는 날”이라는 제목의 다음 글은 이를 잘 드러낸다.

밭에 가는 날

밭일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엄마 내일은 무슨 일?
내 마음은 조마조마
내일은 비가 와서
휴 -- 살았다.

밝은 일요일 아침 햇님은 웃고 있지만
내 얼굴은 울상이 되고
일하는 내 마음속에선 아이고 허리야 어깨야.
이리저리 아픈 곳
(중략)

(신○하, ○○중학 2학년 1반 학급문집 「씨앗하나」 중에서)

또한 공부하려는 사람은 하게 하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냥 내부는” 제주의 자립적 자녀교육문화도 청소년 비행과 무관하지 않다. 자립심을 강조하는 제주의 자녀교육 문화는 오늘날 강요된 학력경쟁구조안에서 숨들릴 틈 없이 성장해야 하는 제주 청소년들에 하나의 탈출구이기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녀교육의 방임과 그에 따른 청소년 비행을 결과할 수도 있다.

한편, 제주도내 어느 부속도시의 문화기술적 연구보고(조혜정, 1989)에 의하면, 제주 여성은 남편에게 “관용을 베풀면서도 한계”를 그으며, “무한정 용서와 헌신

보다 자립적 인격을 중시"하므로 남편과 이혼할 가능성이 크며, 한편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할 경우, 가부장적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유교적 당위와 실제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인해 "술, 도박, 작은 각시, 잦은 외출 등"으로 도피하기도 한다. 이같은 가족문화는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사례 #5,6,15 참조).

다음으로 제주도내 실업계(공고, 상고, 농고, 수산고 등) 고교생들의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중도탈락율(김민호,1992 참조)에서 제주의 학교환경과 비행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취업기회가 제한된 제주도 경제구조에서 졸업생들의 취업율이 그다지 높지 못한 실업계 고교를 다니는 일은 학생들에게 별다른 희망을 주지 못한다. 이른바 문화적 목표와 구조적 수단 간의 괴리에 따른 아노미적 현상이 제주의 실업계 고교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본다. 제주보호관찰소년들 중 실업계 고교생이 인문계 고교생들보다 훨씬 많은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끝으로, 제주의 사회환경 요인 중, 제주도민의 '친목문화'는 청소년들에게 '항회' '학우회' 등의 형태로 나타나 집단내 협동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는 면이 크기도 하나, 비행문화에 감염될 경우, 비행은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갈 것이고, 집단간 갈등으로 비화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관광산업의 급성장, 매스 미디어의 보급 등으로 향락적 사회문화에 의해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 제주의 청소년들은 공부와 일 그리고 때때로 휴식을 취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셈이다(박태수,1990;김태보,1991;허철수,1991).

이처럼 제주의 가정, 학교, 사회환경은 제주 청소년들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이 제주의 가정, 학교, 사회환경 그 자체가 제주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이고도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없다. 청소년 비행은 무엇보다도 비행문화의 학습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행문화의 습득을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 요인이라 한다면, 비행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환경은 비행문화의 형성과 확대를 방임, 조장 또는 억제하는 간접적 요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V. 맺 음 말

이 글의 목적은 제주지역 청소년 비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탈에 관한 차별적 교제이론의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었다. 제주지역의 「청소년 비행」은 제주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비행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야기되었음을 '93년 제주지역 보호관찰소년들의 <회상록>에 나타난 주관적 삶의 세계를 근거로 입증하려 했다. 또한 여기서 동원한 <회상록> 분석의 연구방법은 기존의 설명지향적인 자연과학적 연구에 비해 보호관찰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했다. 연구결과는 역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비행으로 말미암아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던 청소년들은 당시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비행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심리적 특성이나 사회구조적 조건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소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보통의 청소년들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우리의 편견이 그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낙인'해 왔던 것이다. 이들 제주지역 보호관찰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 직접적 계기는 이른바 「비행문화」의 학습의 결과였다. 이미 비행문화에 젖어든 사람들과의 차별적 교제를 통해 비행문화의 사회화가 이뤄졌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된 소년들의 가정, 학교,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비행이 행위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비행문화의 습득을 통해 수행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는 이제껏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행위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심리적 성향이나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는 데서 벗어나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 정책의 방향은 비행 청소년들 자신의 의도적 노력을 전제로, 비행문화와의 접촉을 줄여 나가고 점차 정상적인 사람들의 표준문화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데 모아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민호(1987). 교육학 연구에의 현상학적 접근. 제주교육대학 논문집. 17, 43-75.
- 김민호(1992). 제주 아동의 교육 및 보건실태와 개선방안. 제주교육대학 초등교육 연구소. 초등교육연구. 1, 1-30.
- 김태보(1991). 관광·경제 성장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책. 제주도 주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범도민 대토론회(91.5.17, 제주도청 대강당) 주제발표 논문, 53-78.
- 박태수(1990).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 방안. 제주도 주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범도민 대토론회(91.5.17, 제주도청 대강당) 주제발표 논문, 47-74.
- 박태수(1993). 제주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예방.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주최 제1회 청소년 선도대책 세미나(93.5.14) 기조강연, 9-26.
- 손영주(1993). 청소년 비행예방과 가정교육.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주최 제1회 청소년 선도대책 세미나(93.5.14) 주제발표 논문, 53-71.
- 양정국(1993). 학교교육과 청소년문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주최 제1회 청소년 선도대책 세미나(93.5.14) 주제발표 논문, 29-46.
- 조혜정(1989). '발전'과 '저발전' : 제주 해녀 사회의 성체제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문학과 지성사, 263-331.
- 허철수(1991). 청소년의 문제실태와 해결방안. UNICEF와 한국어린이재단 제주지부 공동주최. 1990년대 제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91.10.11, 제주시교육청 대강당) 주제발표 논문, 61-90.
- Archer, D.(1985). Social deviance. Lindzey,G. & Aronson,E.(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I : special fields and applications*. New York : Random House, 743-804.
- Liska, A.E.(저). 장상희 외(공역)(1986). 일탈의 사회학. 서울:경문사.
- 청소년백서. 1988.
- 제주 ○○중 2학년 1반 학급문집 『씨앗하나』
- 제주 ○○중 2학년 2반 학급문집 『답쟁이닝쿨』
- 제주 ○○고 1하기년 7반 학급문집, 『흐스나히』
- 제주 홍사단 아카데미 서클문집 『머드러기』 제2호

부록 : 분석에 사용되었던 보호관찰 소년들의 회상록 사례

사례 #1 : 박○범, 19세, ○○상고 3년 퇴, 절도·장물취득 1회.

사례 #2 : 고○경, ○○여중 2년 퇴, 본드.

사례 #3 : 김○철, 16세, ○○상고 재학, 절도 1회, 가퇴원.

사례 #4 : 정○인, 17세, ○○여중 2년, 특수강도 미수.

사례 #5 : 강○국, 16세, ○○중 2년 퇴, 본드 1회.

사례 #6 : 김○택, 18세, ○○상고 2년 재학, 폭력 1회.

사례 #7 : 전○현, 19세, ○○농고 3년 퇴, 절도·장물 취득.

사례 #8 : 박○기, 18세, ○○중 3년 퇴, 강도상해 등 2회.

사례 #9 : 황○일, 15세, ○○중 2년 재학, 특수절도 1회.

사례 #10 : 김○천, 19세, ○○농고 3년 재학, 특수절도.

사례 #11 : 이○태, 20세, ○○공고 졸, 폭력 1회.

사례 #12 : 권○수, 19세, ○○고 3년 재학, 폭력행위 등.

사례 #13 : 문○석, 18세, ○○공고 2년, 상해치사 1회.

사례 #14 : 임○범,

사례 #15 : 장○주, 18세, ○○여고 1년 중퇴, 절도(1회의 폭력 경력).

사례 #16 : 오○중, 21세, ○○고 2년 중퇴, 야간주거침입 절도.

사례 #17 : 김○희, 18세, ○○상고 3년, 폭력 1회.